

삼삼오오 정답게 모여

전국문화예술품 전시관

# 도도 란란

『숙풍 제16회 정기공연』  
2025. 09. 06. 토. 오후 4시 - 오후 7시  
숙명여자대학교 제1캠퍼스 순현관 사거리

숙풍 33기 · 숙풍 34기 · 숙풍 28기 · 숙풍 29기 · 숙풍 31기 · 숙풍 32기  
광풍연 · 액맥이 · 한대노리 · 한소리



# 도란도란

## 판제

[앞굿] 내는굿 - 길굿 - 고사굿 - 이채 - 사채 - 칠채 - 호허 - 풍류

[뒷굿] 참굿 - 삼방울진 - 미지기 - 재능기 (소고춤/설장구/채상놀이)  
- 수박치기 - 미지기영산 - 노래굿 - 영산 - 난장

## 고사굿

숙명여자대학교 중앙풍물패 「숙풍」이 늘 즐겁고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치배들과 관객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고사를 드립니다.  
고사굿의 마지막 순서에는 관객 여러분도 함께 절을 나누고  
인사해 주시면서, 서로의 평안과 앞날을 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람 방법

- 열씨구/좋다/잘한다/멋지다 등의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 앞굿의 [풍류]와 뒷굿의 [영산]은 각 판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때 관객분들께서도 원진 안으로 들어와 정답게 놀아 주신다면,  
숙풍과 함께 맑은 바람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도란도란” 가을 밤을 즐기며 판굿을 완성해주세요!

숙풍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도란도란 담아주세요♥

사진 / 영상 등을 찍어 숙풍 인스타그램 태그(@sookpoong) 후  
피드 / 스토리로 올려주세요!  
도란도란 피어나는 모든 순간을 함께 기록하고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상쇠〕

## 정선나 (숙풍 33기)

숙풍 9월 정기 공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숙풍 33기 상쇠 정선나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날려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된 사람 소리 질러~! 이번 공연을 위해 발걸음해 주신 모든 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고로 신나고 재밌는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내기 시절 선배들을 보며 ‘나는 언제쯤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무척 동경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9공을 앞둔 현재, 그 시절 선나가 동경했던 모습에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뿌듯하고 그러네요. ㅎㅎ  
반짝거리는 눈으로 연습에 임해 준 귀요미 34기,  
항상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의 나침반 32기 언니들,  
조그만 동방에서 1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나의 버팀목 33기  
정말 너무 고맙웠어요. 흑백 영화로 흘러가던 제 대학 생활에  
무지갯빛과 같았던 숙풍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마침내 울려 퍼질 풍물 소리처럼  
신명나는 청춘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숙풍은 사랑입니다♥



### 〔부쇠〕

## 김지원 (숙풍 3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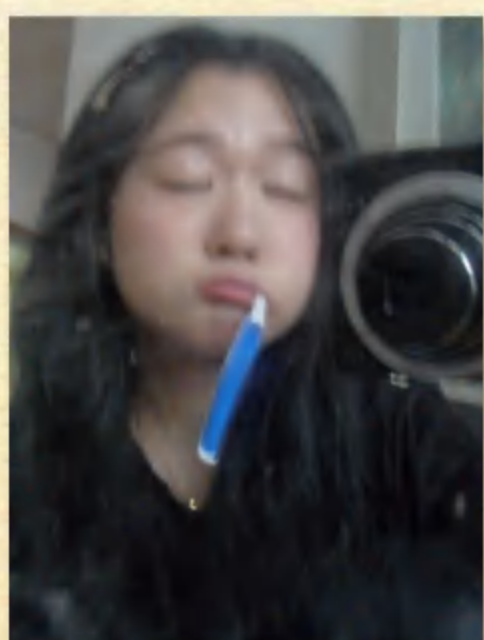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숙풍 33기 부쇠 김지원입니다!  
마침내! 숙풍의 9월 공연이 다가왔습니다 (와아~!)  
우리들의 연풍대 속도처럼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숙풍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풍물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나만의 악기를 갖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처음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에요. 이젠 풍물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어요...^\_^  
그만큼 숙풍은 제게 즐거움 그 자체이기에, 감사한 분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공연에 그 소중함을 최대한 담아 보려 합니다!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우리 33기, 지금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진짜로 여행가자^^  
낯설고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 준 34기, 고마워요!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시는 32기 언니들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시는  
숙풍OB선배님들과 외부치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행복한 기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 〔삼쇠〕 이선민 (숙풍 33기)

안녕하세요. 숙풍 33기 삼쇠 이선민입니다.  
어느덧 33기의 마지막 정기 공연이네요. 32기 선배들과 항상 함께일 것 같았는데  
눈 떠보니 집부가 되어 있고, 34기와 9월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2025년 여름은 풍물로 꼭 채워 보냈기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희의 여름을 갈아 넣은 만큼 모두가 신나게 즐기는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공연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준비한 33기♥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고생 많았고, 34기도 방학동안 소고춤 준비하고 연습하느라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항상 옆에서 지켜보며 도와준  
32기 선배들 덕분에 항상 든든합니다.  
오늘은 근심걱정 다 잊고 도란도란 둘러앉아 흥겹게 즐겨주세요~!~!



## 〔수징〕 김경빈 (숙풍 31기)

숙풍의 모두가 행복하기를..... 우헤헤  
여기 와 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지이이이이잉



## 〔징〕 오태경 (광운대 광풍연)

숙풍으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숙 광운대  
풍 파이팅  
농담이고 숙풍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장구〕 강수빈 (숙풍 33기)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장구랑 저랑은 궁합 0%라고 생각했는데 (^▽^)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상장구가 되어 정기 공연에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늘 제 일처럼 도와주는  
32기 언니들과 OB 선배님들, 그리고 서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33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33기들 덕분에 웃으면서 잘 버틸 수 있었어요. 내 마음 알지~~? (^///^)  
저에게 작년 공연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번 공연이  
우리 34기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청춘의 한 조각으로 오래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서투른 33기를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왕 하게 된 거,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달려왔고,  
그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숙풍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정성과 열정이 가득 담긴 공연이니, "도란도란" 모여 함께 즐겨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오래오래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 〔부장구〕 박현아 (숙풍 33기)

안녕하세요, 숙풍 33기 부장구 박현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9월 공연을 보러 귀한 시간 내어주신 관객분들, OB분들,  
그리고 외부 치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청량한 가을을 맞이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숙풍 34기 친구들! 매번 헛갈리는 것도 많을 텐데 언제나 씩씩하게 잘 따라와 주고,  
활기찬 모습으로 집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어 고마워요. 이번 여름전수/9공 올여름  
폭염 속에서도 모두가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3기! 뭐 말을 더 할 게 있나요. 내 대학생활을 함께해 줘서 너무 고맙고,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정말 많았어. 사랑해! ♥



## 〔장구〕 백한결 (숙풍 31기)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숙풍 공연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벌써 33기 분들이 집부가 되어 이끄는 공연이라니 감회가 새로워요!  
후배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에 선배로 함께할 수 있어 더 뜻깊은 것 같아요ㅎㅎ  
오늘 공연에서 치배분들과 관객분들이 함께 도란도란  
마음을 나누며, 이 소중한 만남이 예쁘고 따스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 〔장구〕 천세림 (숙풍 29기)

안녕하세요! 숙풍 29기 천세림입니다.  
요새 외부에서도 33기 친구들을 종종 보는데 정기공연에도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더운 여름에 굿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많았을테지만 여러분께 즐거운 기억으로  
오래 남길 바랍니다. 당일날 다같이 신나게 굿 쳐봐요~! 항상 응원합니다 숙풍!! ♥





## 〔말장구〕 박소연 (숙풍 33기)

벌써 9월 공연을 올릴 시기가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 초에는 까마득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눈 앞에 정점이 있네요.  
공연을 준비하느라 매주 바빴던 33기들 모두 고생했어요. 캘린더가 짝 찬 만큼  
함께해서 좋았어요. 34기들은 공연 준비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외부치배 분들도 흔쾌히 공연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3기 자매님들 9월 공연 잘 끝내고 25년 하반기도 잘 해쳐나갑시다!!



## 〔수북〕 최지원 (숙풍 32기)

너무나도 뜻깊은 33기의 공연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리가 무색하지 않도록 야무진 북소리로 보답하겠습니다 ㅎㅎ  
저의 목표는 공연 중 모두와 눈 마주치기이므로!! 함께하는 모든 분과  
행복한 시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3기 너무 고생 많았어  
사랑해~~!!!! (◡‿◡)\*♡ (34기, 선배님들, 그리고 늘 애정하는 32기도~)



## 〔북〕 김수현 (숙풍 34기)

설렘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연습 한 만큼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북〕 백은별 (숙풍 34기)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할 때 초반에는 늘 너무 더운 날씨나  
부족한 체력 같은 장애물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연습하면서  
함께 웃고 울다 보면 다 잊어지는 게 숙풍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매주 만나는 만큼 친구도 빠르게 사귄 수 있고, 대학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는 접하기 쉽지 않은  
복장으로 공연하다 보니 다 같이 웃으면서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 〔말북〕 조수연 (숙풍 34기)

안녕하세요. 9공 북치배를 맡게 된 조수연입니다.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소고〕 이서진 (숙풍 34기)

안녕하세요 숙풍 34기 이서진입니다. 우선 함께 공연을 만들어 나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풍물을 사랑하는 멋진 분들과 9월의 시작을 열 수 있어  
영광입니다! 특히 많이 부족했던 수소고랑 연습하느라 고생한 숙풍 34기,  
매 연습마다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숙풍 33기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도란도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한페이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5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소고/장구〕 안유영 (숙풍 34기)

한 학기 넘게 풍물패 활동을 하고 전수를 다녀오며 많이 배웠고,  
또 마음가짐도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방학 때 종강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는데, 배우고 익힌 것들을 전부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헌관 사거리가 베풀어져도 장구는 바르게 쳐야 하니까요



## 〔소고/장구〕 강혜원 (숙풍 34기)

벌써 9월 공연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아요 ㅎㅎ 그동안 많은 도움 주신  
집부분들과 함께해 준 34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물은 다다익선인 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 공연하게 되어 더 신나고 기뻐요~!!  
부디 저희의 열정과 흥이 모든 관객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 〔소고〕 주다온 (숙풍 34기)

안녕하세요 9월 공연에서 소고를 맡은 34기 주다온입니다!  
숙풍과 함께하는 두 번째 공연이네요. 올해 여름의 뜨거운 열기만큼  
숙풍도 열심히 공연 준비했으니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고〕 김윤희 (숙풍 34기)

1학년 때 바라보기만 했던 공연을 직접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신기해요!  
특히 34기 친구들과 계속 붙어서 연습하니 이제 가족이야 우리..  
이번 공연도 숙대에 숙풍이 멀리멀리 울려 퍼지길~  
숙풍 짱 다들 고생했어요. 공연 파이팅♥♥



## 〔소고〕 송지윤 (숙풍 34기)

34기 소고치배 송지윤입니다. 함께 있으면 계속 웃게 해주는 34기 동기들,  
항상 무한한 인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33기 선배들,  
그리고 곳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외부치배분들과 다시 공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직 모든 게 서툴렀던 5월 공연때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무더위가 가신 새 학기, 신나고 활기차게  
한판 놀아보겠으니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고〕 김서연 (숙풍 34기)

숙풍의 첫 번째 정기공연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가 하나되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이 날을 위해 열심히 소고춤도 준비했습니다!



## 〔말소고〕 지서영 (숙풍 34기)

안녕하세요 숙풍 34기 소고 지서영입니다.  
땀을 뽀뽀 흘리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9월 공연 날이 밝았네요!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초입을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소중한 마음들이 도란도란 모여  
적은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그리고 5월 공연에 비해서  
제 풍력(풍물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지켜봐 주세요!!



## 〔수백구〕 조지윤 (숙풍 33기)

안녕하세요! 숙풍 33기 패장이자 수백구인 조지윤입니다!  
풍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삼삼오오” 모여 봄을 맞이하고 이번에는  
“도란도란” 가을을 맞이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는 32기 언니들과 OB선배님들, 성실하고 에너지틱한  
34기 덕분에 공연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3기 덕분에 지치지 않고 매 순간 행복하게 연습하고  
공연을 올릴 수 있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란도란” 즐기러 와주신 모든 치배 분들과 관객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공연이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간백구〕 한정윤 (숙풍 28기)

안녕하세요. 숙풍 28기 채상치배 한정윤입니다.  
벌써 5번째 숙풍 정기공연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항상 고민 많았을 집부들 공연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고,  
'도란도란'에 참여하는 치배들 모두가 눈 마주치며  
도란도란 서로의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3기 파이팅♥



## 〔중간백구〕 최현서 (숙풍 31기)

너무 기대되네요!!  
즐겁고 알찬 공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숙풍 채고~♡♡♡ 번창하자~~₩₩₩₩



## 〔말백구〕 최승연 (숙풍 32기)

안녕하세요. 32기 최승연입니다. 벌써 33기가 9공을 하는 가을이 왔네요.  
해오름제, 5공과 9공까지 33기, 34기와 함께 공연을 뒀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2025년 봄, 여름, 가을을 숙풍과 함께해서  
도란도란 추억이 쌓여서 너무 좋습니다.♥ 정기공연이라는 큰 공연을 위해  
열심히 한 33기들, 여름 전수 이후에 소고춤을 준비하며 열심히 연습에  
참여했을 34기 새내기분들의 즐거운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 〔대포수〕 이지윤 (숙풍 32기)

안녕하세요. 숙풍 32기 이지윤입니다~  
2025년 숙풍 여러분의 가장 찬란할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번 판굿 덕분에, 도란도란 웃음꽃 피는 하루를  
보낼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ㅎㅎ 공연 준비하느라  
소중한 방학에 자주 등교했을 33기와 34기에게 박수를 보내며..  
언제나 숙풍을 응원합니다 ♡w♡



## 〔양반〕 류재훈 (동국대 한소리)

숙풍에서 하는 공연은 처음인데 유튜브 애청자이기도 하고  
저번에 광풍연, 숙풍 합동 공연을 너무 재밌게 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각시〕 노아 (덕성여대 한대노리)

숙풍 9월 공연에 함께 댄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공연 준비에 많이  
힘쓰셨을 33기 숙풍 집부분들께 너무너무 멋지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숙풍 34기 분들과는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연인 만큼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공연에 참여하겠습니다! 숙풍 화이팅!!!



## 〔조리중〕 반짱 (이화여대 액맥이)

재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풍 파이팅!



## 〔할미〕 장예지 (동국대 한소리)

숙풍 정기 공연에 함께하게 되어 무척이나 설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0^



## 〔뒷치배〕 남궁송 (숙풍 32기)

안녕하세요, 숙풍 32기 남궁송입니다! 우리의 작고 소중한 33기가  
벌써 9월 정기공연을 올린다니 믿기지 않네요.. 33기가 열심히 준비한 공연에  
함께 자리해주신 외부치배분들과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연과 함께 무더운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기억 가득 안고 가시길  
바라봅니다☺ 우리 33기 9공까지 달려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 〔뒷치배〕 이현서 (숙풍 32기)

안녕하세요 숙풍32기 이현서입니다 33기와 34기가 열심히 꾸린 공연의  
뒤에서 도와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31..~..) 새내기였던 33기가  
드디어 숙풍으로서 가장 큰 공연을 올리니 느낌이 새로워요 “도란도란”이라는  
공연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33기가 아닌가 싶네요♡  
다들 재밌게 놀아봅시다 저도 뒤에서 열심히 즐기겠습니다././



## 〔뒷치배〕 임수린 (숙풍 32기)

33기와 34기가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 공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밌게 놀다가श्य요~~~°.+:.∩(•ω•)∩°.+:.  
(공연 뛰는 32기는 제대로 안 하면 참 제공이 어렵습니다♡)  
제가 사진은 잘 못 찍지만 인생샷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앗\(^)/ ㅎㅎ 화이팅!!